



## 감사함은 신속한 치유를 가져온다 A gratitude that brings healing--now

레베카 오데가드(Rebecca Odegaard)

저널 온라인(Journal online)

2011년 11월 21일

감사함은 치유가 일어난 후에 오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다. 그러나, 나는 감사함이 치유를 가져오는 데에도 또한 대단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유일한 도구로써, 누구나 자신의 치유사 도구 상자로부터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결과들을 보거나 느낀 후에까지 기다린 후에 감사함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유가 “내일” 오기를 계속 기대하는 성향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 지금이 결코 아닌 – 다음 언젠가로 늦추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하는 사랑을 당장 경험할 우리의 타고난 권리를 늦추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치유 하셨을 때, 그분은 즉시 치유하셨다. 어떤 사전에 의하면, 즉시(immediate)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중간매개체가 없다 – 즉시, 지체함이 없다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를 행하셨을까?

*감사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 그리고 사랑을 인정한다.*

그 단서의 하나는,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대해 감사함으로, 때로는 소리를 내서, 하셨다는 것이다. 나사로를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셨을 때, 예수님의 감사함은 특히 감동적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요한복음 11 장 41 절, 42 절). 군중들을 먹이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마태복음 15 장 36 절 참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한다 (마태복음 6 장 9 절 참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이디어임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표현 되는 이런 관점을 자연스럽게 알아 보셨고,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던 것이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이것을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필멸의 존재들은 사람을 죄짓는 필멸의 존재로 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과학**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보셨다. 구세주는 이 완전한 사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보셨으며, 사람에게 관한 이 올바른 견해가 병자를 고쳤던 것이다.”(476-477 쪽)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 그리고 사랑을 겸손히 인정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존재하시는 그대로 인지하는 기도이다. 이런 관점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 되는 자애로운 보살핌을 받아들이게 된다. 에디 여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더욱 많은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된다”고 설명한다. (*과학과 건강*, 3 쪽) 우리는 신성의 섭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결합하는 것이다. 신성과 공존하며, 우리는 신성을 경험한다.

***감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모든 것을 심적으로 패배시키는 방도이다.***

감사함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거나 부정하려 우리 삶에 침입하는 모든 것들을 심적으로 제거하고 패배시키는 방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나는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있는 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증거가 있다.

우리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하고 나의 두 번째 아이의 해산이 임박한 어느 날, 나는 아들을 평소처럼 낮잠을 재우려 자기 방안에 누여 놓았다. 두 층 밑에 있는 부엌에 서서 나는 아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소리가 그의 방으로부터 나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 딸이 태어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 계단을 올라가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다시 듣게 되자, 나는 올라가서 아들의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너무나 강한 지시를 느껴서 이에 대한 의심 없이 그의 방으로 곧장 올라갔다. 내가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아들이 창턱에 앉아서 자기 레고 장난감 조각들을 아래 시멘트 차도로 던지면서 그것들에게 “잘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를 창문에서 들어냈는데, 그는 이미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놓았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나는 그분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아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남편은 귀가하여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만큼만 열리도록 창문을 고쳤다. 그러나 나는 그날 저녁과 다음날까지 뒤숭숭했고 안절부절못했다. 나는 스스로를 탓하며, “만일 ...했더라면?”하고 묻기를 멈출 수 없었다.

이 일이 있는 후 다음날 밤, 나는 기도하려 일어났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다. 나는 신성의 **마음**이신 **하나님께**, 내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경고를 주셔서 내가 반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나는 **그분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아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평화와 명료함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두려움, 자책감, 안절부절 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감사함의 힘을 느낄 기회가 다시 있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의 출발을 몇 달 앞 두고, 나의 건강이 나빠졌다. 계획했던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 나는 친구에게 이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출발 예정일까지는 몸이 좋아질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를 실망시켜야 할 말을 하기가 정말 싫었다.

***감사의 기도는 겸손한 확신의 기도이다.***

그러나 그녀는 실망하는 대신, 와서 나를 돌봐주겠다고 선뜻 답하였다. 그녀는 그 말 대로 해주었다. 우리 개를 산보시키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고, 나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옷을 입혀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여러 달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위해 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것이다: 매일 밤 내가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주는 동안, 침대 곁에 서서 소리 내어 기도를 했다. 그녀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찬 현존의 모든 증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다! 당시 그 보다 더 진실과 동떨어진 것은 없는 것같이 보였지만, 반대 되는 증거에 직면한 상태에서 내 존재의 영적 사실에 대한 이 겸손한 진술을 들으면서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고는 했다.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내가 점차로 이 확언에 동의하게 됨에 따라, 나는 정상 상태와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나는 완전히 치유 되었다. 나중에 우리 둘 모두에게 맞는 때에 같이 여행을 하였다.

감사의 기도는 겸손한 확신의 기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치유의 기도이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기도로 한번 치유되면, 감사함은 그 후 자연스럽게 계속 흐르게 된다.

*레베카 오데가드는 크리스천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고 선생이다. 그녀는 뉴욕시와 서부매사추세츠주에서 번갈아 가며 살고 있다.*